

미안하다 몰라봐서...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국보의 세계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재밌어서 밤새 읽는 국보 이야기 1·2

이광표 지음

다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송례문, 기마인물형 토기,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금동마복보살 반가사유상, 팔만대장경, 조선왕조실록...

바로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들이다. 수업시간에 한번쯤 들었을, 또는 현장에서 봤을 그런 문화유산들이다.

법박하게 말하면 문화유산은 '옛사람들이 남긴 삶의 흔적'이다. 물론 흔적은 다양하다. 책을 비롯 해 그림, 그릇 등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노래와 철학 같은 유무형의 흔적도 해당한다. 그 가운데 일반인들이 눈으로 보고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유형문화유산인데 국보와 보물이 대표적이다.

국보는 어떤 것을 지정하며 그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서원대 휴머니티교양대학 교수인 이광표 박사는 "국보는 여러 문화유산 가운데 특히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 제작 연대가 오래되고 그 시



대를 대표하는 것, 제작 의상이나 제작 기법이 우수해 그 유래가 드문 것, 형태·품질·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 제작한 것'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의한다.

서 교수가 이번엔 펴낸 '재밌어서 밤새 읽는 국보 이야기 1·2' (2권)는 국보란 무엇이며, 그것의 미적 가치,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국보의 수난사, 해외에 있는 국보 급 문화유산 등을 망라한다. 한마디로 '국보 종합 서적'이라 할 수 있다.

전직 일간지 기자였던 저자는 대중들이 문화유산과 문화예술을 어떻게 인식하고 향유하는지 관심을 갖고 글을 쓰고 연구한다. 지금까지 '명작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문화재 가치의 재발견', '한 권으로 보는 그림 문화재 백과' 등을 발간했다.

먼저 저자는 송례문과 흥인지문이 각각 국보 1호, 보물 1호인지 그 차이를 설명

한다. 제작연도 면에서 송례문이 흥인지문을 400년 앞서고 건물의 미적 측면에서도 우월하다. 흥인지문이 과도하게 장식과 기교에 치중한 반면 송례문은 절제, 균형미가 뛰어나다. 또한 송례문은 고려시대 주시포식에서 조선의 다포식으로 이월되는 건축 변화상을 보여주지만 흥인지문은 조선말기 보편화된 다포식 양식이다.

국보의 번호가 사라진 이야기도 접할 수 있다. "국보, 보물의 지정번호를 단순한 번호가 아닌 순위(등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풍토를 없애기 위해 서였다"는 설명은 수궁이 가는 대목이다.

저자에 따르면 2024년 2월 현재 국보 지정된 문화재는 모두 358건이다. 이들 국보들은 저마다 흥미로운 스토리를 내재하고 있다. 특히 '겉과 속'이 모두 국보인 이색적인 경우가 눈에 띈다. 함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이 그런 사례다. 팔만대장경 자체가 국보이지만 8만장 경판을 보관하고 있는 목조 건물 장경판전 역시 국보인 것이다.

장경판전이 국보로 지정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제작된 지 800년이 다 된 팔만대장경이 훼손되지 않고 오늘에 이른 것은 보관 건물도 그만큼 탁월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장경판전은 국보에 지정된 것을 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됐다.

국보가 모두 한 점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것도 아니다. 저자는 '익산 왕



정선의 '인왕제색도'

궁리 5층석탑 사리 장엄구는 순금제 금강경판과 유리 사리병 등 9종을 포함한다"며 "우리에게 익숙한 국보인 도기 기마 인물형 명기는 한 쌍으로 되어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보의 아찔한 수난사를 다룬 부분은 안타까움을 준다. 국내 문화유산 도산은 매년 20여 건 1000여 점에 이르는데 반해 회수율은 불과 10~20%에 불과하다. 범인은 사라지고 문화유산만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범인

들이 유산을 돌려주고 종적을 감춘다. 1967년 사라졌던 금동연가7년명 여래입상도 그렇고 2003년엔 울산 석남사 '지장보살도'가 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 앞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한편 저자는 "과거 없는 현재는 없고 역사와 내력이 없는 인간이나 사회도 없다"며 "과거와 역사는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 바로 문화유산이다"고 강조한다.

(더살림 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보 청자 참외모양 병

어른의 인성 공부

신동기 지음

고전 가운데 하나인 '대학'은 수선제가치국평천하로 요약된다. 먼저 자신을 올바르게 하고 집안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린 뒤에야 천하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주희는 '대학'을 일컬어 '대인지학' (大人之學)이라 했다. 말인즉슨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성인成人이 되기 위한 학문'이 바로 대학이라는 뜻이다.

오늘날 동서양을 아우르는 21세기 버전인 '대학'은 사람의 성품을 다루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의 중심은 '이성'이다. 건국대 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한 바 있는 신동기 박사가 최근 사람의 '이성'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 책을 펴냈다.

'어른의 인성 공부'라는 제목이 말해주듯 책은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성인으로 역할하기 위한 과정 등에 초점을 맞췄다. 저자는 인간은 '불완전한 이성'을 지니고 이 세상에 왔다고 전제한다. 때문에 마땅히 그 무엇보다 먼저 스스로의 '이성' 향상에 매진해야 한다고 본다.

핵심 주장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마음이 몸의 주인이 되게 하라'는 내용이다. 저자는 "내면에 '자발적 윤리 브레이크'를 장착하고, 마음이 몸의 주인이길 선택한 진정한 인간이자 건강한 자유의지의 인간"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깨어 있는 민중 시민'의 중요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지구인'의 추구 등도 역설한다.

저자는 "우리 각자가 인간으로서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추구하면 됩니다.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선한 본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가능성으로 주어진 '이성'을 추구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인성 사냥'을 갖추는 것입니다"라고 언급한다.

<생각여행·1만62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김제동 지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이보다 더 나를 위로해주는 말이 있을까. 내 이야기에 동감해주는 이 한 문장은 그 어느 말보다 나에게 힘이 되어준다.

방송인 김제동이 살면서 제일 많이 쓰는 말, 들었을 때 가장 좋은 말,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내 마음을 전할 때 쓰는 말 '내 말이 그 말이에요'로 독자들에게 봄 인사를 건넨다. 30만 독자가 웃고 울고 공감했던 '그럴 때 있으시죠?' 출간 후 8년만의 에세이다.

'오늘 하루를 든든하게 채워줄, 김제동의 밥과 사람 이야기'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책은 김제동이 나를 먹고고 남을 먹고고 돌보는 살림 이야기, 아이들을 만나 함께 웃으며 치유받은 몽글한 순간들, 임시보호 하던 강아지 '탄이'와 5년째 함께 살면서 느끼기 가슴 따뜻한 순간들을 일기처럼 때론 편지처럼 독자들에게 전한다.

김제동은 책 속에서 누군가에게는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일상인 '밥 먹는' 일을 유독 강조한다. 한때 '밥 먹은 자격도 없는 놈!' 취급하며 오래도록 스스로를 괴롭혔던 자신에게 보내는 사과의 행동이라고 고백했다.

"자기를 잘 뒷바라지 하는 일을 멈추면 일상이 무너지게 되니까 조금은 귀찮기도 하지만 스스로에게 밥 잘 해 먹고, 자기를 극진히 돌보는 일, 스스로를 살뜰하게 살피는 일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꾼' 김제동의 재치있는 글과 함께 담긴 귀여운 일러스트는 그림 작가 설씨의 그림이다. 일상 속에서 다양하게 다가오는 순간들을 기발하게 표현하는 작가는 이번에도 마음이 머문 소중한 순간들을 독특한 상상력으로 그려냈다.

<나무의마음·1만7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기록학, 역사학의 또 다른 영역

오항녕 지음

'기록학'과 '역사학'은 과거사를 아카이빙해 미래를 내다보는 한편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기록학 자체가 역사학의 또 다른 이름이며, 역사학의 근간 자체가 기록학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다.

고려대 사학과 및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고전번역원 등에서 활동한 오항녕이 '기록학, 역사학의 또 다른 영역'을 펴냈다.

저자는 전주대 사학과(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그동안 기록과 역사를 관통하는 '기록한다는 것', '한국사관계도성립사', '사통', '역사학 1교시, 사실과 해석' 등을 발간해 왔다.

"역사학에는 아버지가 돌이라는 말이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사기'를 편찬한 중국 한나라의 사마천을, 지중해 지역에서는 '역사'를 쓴 소아시아 사람 헤로도토스를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한다."

저자는 기록학 연구를 위해 역사학의 원전으로 꼽히는 '사기'와 '역사' 등 철저한 역사문헌·사료 분석부터 시작한다. 선대 연구자들이 역사 자료를 수집한 방법으로 답사, 기록, 구술, 문서 기록 등을 비교분석하며 각각의 기록학적 장단점을 논평한다. 그러면서 역사학·기록학 연구에 단일한 방법만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이들 요소를 상호보완, 유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역사학 자료 수집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현대 기록학의 출발지인 서구와 도서관, 역사학 연구 방법과 서구 기록학 변천사가 동양에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들여다본다. 활자를 비롯해 다양한 매체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 역사를 만드는 행위이며, 역사의 현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행위를 강조한다.

<푸른역사·1만4000원>

/최윤희 기자 rubi@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